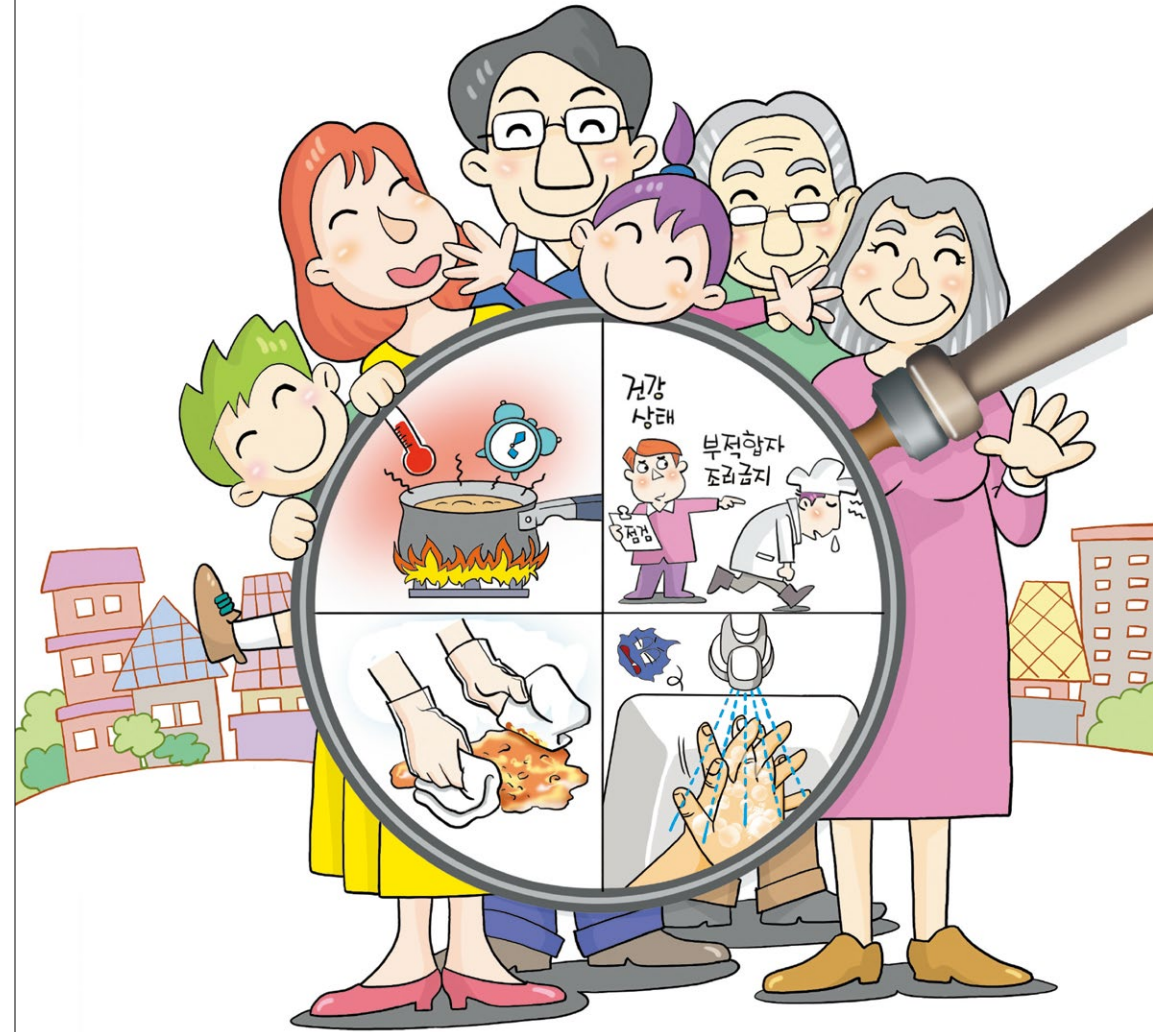


노로바이러스

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·대응 요령



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란?



1 특징

-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
-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에 발생하나 특히, 어린이,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위험
-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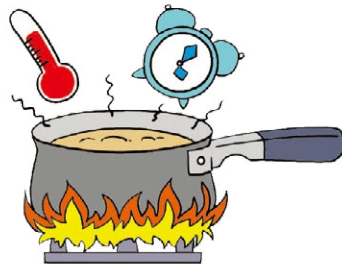
2 증상

- 감염 후 24~48시간 내에 설사, 구토, 발열, 복통을 일으킴. 통상 3일내에 회복되나 1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배출



3 예방법

- 음식물이나 물은 85°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
- 외출 했다 돌아온 후, 식사전 반드시 손씻기
- 역성비누, 알코올 소독제는 충분한 소독 효과가 없으나, 염소소독제는 효과가 있음



4 오염경로

1 경로 식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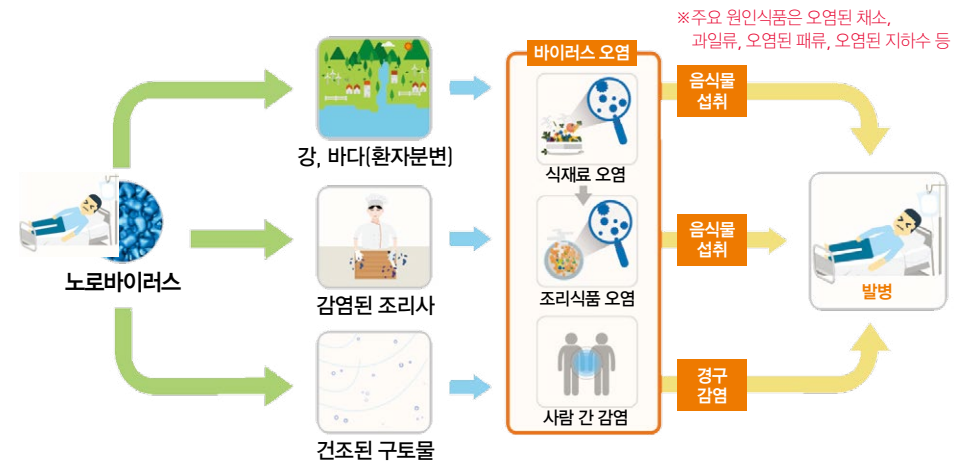
사람의 분변에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하수를 거쳐 강, 바다로 옮겨져 어패류 내장에 축적 →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

2 경로 사람

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충분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 조리 → 식품 오염

3 경로 환경

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분변이나 토사물의 비위생적 처리로 공기중에 남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입을 통하여 감염



환자의 분리 및 격리



-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즉시 보건소에 신고 후 환자를 보건소 또는 병원으로 이송
- 환자 가족들에게 증상을 설명하고, 가족들에게 2차 감염되지 않도록 청소, 개인위생 등의 주의사항을 적어 전달
 ※주의사항 : 생식 섭취 자제, 외출 및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, 배설물·토사물 처리 방법 등
- 환자 발생이 중단된 후 2주간은 모든 방문객들에 대한 방명록을 작성하고, 모든 방문자에게 발열, 구토, 설사 증상 발생시 바로 병원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
- 출입이 빈번한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구토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출입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구토물 처리 후에도 1일간은 감염장소를 밟지 않도록 관리
- 환자가 발생한 숙소, 교실 등은 출입을 제한하고 환자가 사용한 의자, 책상, 개인소지품, 보관함 등에 대해 접촉을 금지
- 환자의 구토물 등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건조한 이후 토사물 중 바이러스가 비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토물 처리시와 그 후에 충분한 환기 필요



감염원 제거 1



1 토사물

- 토사물 등 눈에 보이는 감염원을 맨손이나 대걸레로 처리하지 말고 소독액을 묻힌 기구들을 이용하여 제거한 다음 5,000mg/L 염소 소독액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
 ※ 사용한 걸레, 장갑 등은 쓰레기 봉투에 잘 밀봉하여 폐기하고, 감염원 주위 1㎡는 집중적으로 청소와 소독 실시

2 청소방법

- ① 일회용 장갑, 마스크, 가운이나 에이프론을 착용
- ② 토사물은 일회용 천이나 종이 타올 등으로 외측에서 안쪽으로 향해 닦아내 면을 접어가면서 닦는다.
- ③ 사용한 일회용 천이나 종이 타올 등은 바로 비닐봉투에 넣고 처리(이때 비닐봉투에 5,0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스며들도록 넣고 소독)
- ④ 구토물이 부착되어 있던 바닥과 그 주위를 5,000ppm 염소소독액을 적신 천이나 종이 타올 등으로 닦든지 스며들도록 닦는다.
 ※염소 소독액은 철 등의 금속을 부식시키므로, 닦아내고 10분 정도 지나면 물걸레질을 한다.
- ⑤ 장갑을 벗어(외측을 안으로 함)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
- ⑥ 손 세정



감염원 제거 2



1 화장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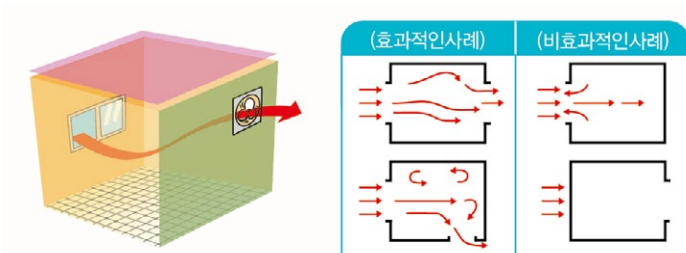
- 화장실이 분변에 오염되어 있을 경우 시설 내로의 오염 확대 방지를 위해 변기, 출입문 손잡이, 수도꼭지 등을 세정·소독
 ※토사물 제거를 위한 청소방법과 동일하게 청소 등 처리

2 살균 소독제 조제법(염소계)

		액상 소독제			
구분		평상시(200ppm)	발생(우려시(1,000ppm))	사고(발생(후)(5,000ppm))	비고
액상	4% 이상 (유효염소농도) 제품	50ml 물 9,950ml	250ml 물 9,750ml	1,250ml 물 8,750ml	10ℓ 제조시
	5% 이상 (유효염소농도) 제품	40ml 물 9,960ml	200ml 물 9,800ml	1,000ml 물 9,000ml	

3 효과적인 환기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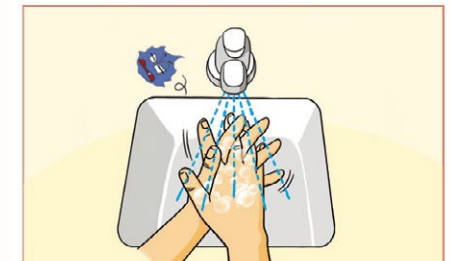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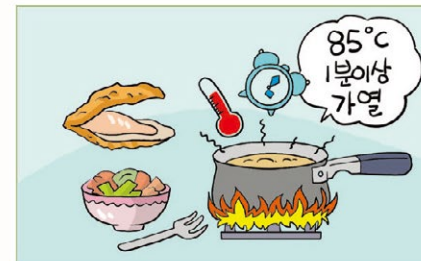
- 공기의 출입구를 가능한 대각선이 되게 2곳 이상을 만든다.
- 환풍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대 측면에 있는 창을 열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.



급식·조리 관리



- 식당 영업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고,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는 음식물 노로바이러스 감염 종사자의 경우 회복된 후에도 일주일 이내 작업 금지
- 샐러드류나 어패류 등 날로 먹는 식단은 피하고 가열 조리한 식단으로 구성, 가열 조리시 음식물의 중심 온도를 85℃ 1분 이상 가열·조리
- 오염이 의심되는 기구·용기와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작업도구, 문고리, 손잡이 등은 염소계 살균·소독제를 이용하여 살균·소독
- 조리종사자들은 반드시 염소 소독액을 사용하여 손목부터 손가락 사이까지 깨끗이 씻고 식품에 조리하는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1회용 장갑 등을 사용



[노로바이러스 감염예방 수칙]



“올겨울 노로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났어요.”

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.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**단체**로 걸리기도 합니다. 특히 **노인**이나 **어린이**들이 감염되기 쉽습니다.



“(증세)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...”

노로바이러스 잠복기는 24-48시간입니다. 심한 구역질과 구토, 설사, 복통, 오한, 발열을 동반하고 몸이 약한 **노인**이나 **어린이**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



“노로바이러스는 정말로 끈질겨요.”

건조한 상태에서도 20°C에서 3-4주간 죽지 않고, 60°C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전염성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꼭 85°C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야 해요.



“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.”

주변에 **노로바이러스**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, 음식물 뿐 아니라 **접촉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** 토사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환기도 시켜야 해요.

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요.
그렇기 때문에, 토사물을 청소할 때도
마스크와 에이프런을 꼭 사용해야 해요.



“특별히 주의해야 해요.”

환자가 토한 자리는 근처에 가거나 **뵈어서도 안되고**
환자가 사용한 의자나 소지품 등을 **만지지 마세요.**

“토사물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.”



반드시 장갑과 에이프런을
착용하세요



토사물은 천이나 종이를 이
용해서 바깥에서 안쪽 방
향으로 닦아야 해요.



사용한 천이나 종이는
비닐 봉투에 넣고
1000-5000ppm 염소소독액
을 부어 소독하세요.



“꼭 지켜주세요.”

손은 항상 깨끗이 씻으세요.
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거나 나왔더라도 전염성이 있으
므로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만들지도 마세요.



“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.”

겨울철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**노로바이러스!!!**
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관리해서
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.

“토사물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.”



토사물이 있던 자리를 염소
소독액 1000-5000ppm을 적
신 천 등으로 덮어 소독액이
바닥에 스며들게 하세요.



장갑을 벗어 통에 담고 마
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염소
소독액으로 처리한 다음



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.

살균 소독제 조제법(염소계)

구분	역상 소독제			비고
	형상사(200ppm)	일명 두레사(100ppm)	사교 일명 후(5,000ppm)	
백상	4% 이상 (유탄염소 농도) 제형 50ml 물 0.950ℓ	250ml 물 0.750ℓ	1,250ml 물 0.750ℓ	10ℓ 제주시
	5% 이상 (유탄염소 농도) 제형 40ml 물 0.960ℓ	200ml 물 0.900ℓ	1,000ml 물 0.900ℓ	

“토사물을 처리할 때는 ...”

절대로 맨손으로 구토물을 만지거나 대걸레로 닦지 말고,
1000-5000mg/L 염소소독액을 충분히 적셔 닦아야 해요.